

## 동곡농협 “권리구제인가·보도 위촉인가” “특별감사·광산구청 토질검사” 의문 증폭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농협을 둘러싼 언론보도와 그 이후의 법적 대응 과정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보도 내용은 로컬푸드 부지 매입 과정과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조건부 성립 결정 이후에도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절차 남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곡농협특별감사를 수일간 실시하여 언론보도가 “근거에의한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청은 토질검사(중금속 오염)도 하지않고, 육안·촉수 검사에 그치는 형식적(절차위반)인 조사 결과를 발송한 공문에 의해, 법적 절차를 남용해 언론보도 사실을 은폐하려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가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방해

하거나 언론보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농협 측은 법적 대응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반복적·확장적 소송 제기가 실질적인 사실 다툼보다는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본질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 절차적 합법만을 놓고 늘어져 보도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위로 압박용 소송 제기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언론사나 취재원에게 경제적·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경우와 반복적 소송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여 대응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최근 법원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보도를 보호하기 위해,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소송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보도 내용의 진위보다는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점 ▲손해배상 청구 등 강도 높은 법적 수단이 동원된 점 ▲동일 사안에 대해 다층적 대응이 이어진 점 등을 들어,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보도를 억제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논란은 동곡농협 감사와 광산구청 행정조치 과정으로까지 확대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곡농협 특별감사가 수일간 진행됐고, 보도 내용이 일정 부분 근거에 기반한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토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광산구청이 정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육안·촉수 점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광산구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방식의 적정성·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책임성과 언론의 감시 기능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묻는 결과 지표가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이 공공성을 띤 기관이 비판적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이라는 창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당한 방어인지 아니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인지 더불어 행정당국의 사후 점검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동곡농협 이동운조합장은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과 원인들을 규명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들을 도피적 법적 대응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여,

반복적 소송보다 투명한 자료(비공개) 공개와 농협 적자 결산의 명확한 설명이 오히려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행정 투명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동취재부

## 40년 만에 ‘한 지붕’... 광주·전남 통합시대 7월 개막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전남광주특별시, 수도권 일극 대항마로 인구 320만·GRDP 150조·예산 25조원 ‘빅3 슈퍼 지자체’로 변모 AI·에너지 등 산업 생태계 전환...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 운영 재정·자치 분권 지속성·실효성 관건... 6월 초대시장 향해 주목

‘천년 한 뿌리’ 광주·전남, 전남·광주가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 몸으로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대통합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낙후의 대명사’이던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연

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으로 소멸위기 극복과 공동번영의 이정표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자치분권을 위한 실효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 분권’에 그칠 수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한 촘촘한 통합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첫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도 현실화 돼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법, 국회 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신중론 행정안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재석 의원 175명 중 16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발의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으로 구성됐고,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는 394개에 이른다.

특별법은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한 자립과 번영의 법적 토대로 볼 수 있다.

또 기존 행정 체제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법 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도청2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토록 했다. 기능에 따른 ‘분산형 청사시스템’인 셈이다.

총칙에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고, ‘매년 5조원, 4년 간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함께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 지방세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재정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 광역교통망 특례, 공공기관 우선이전과 기업 유치를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비로소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리게 되고, 통합특별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더불어민중당 8명을 비롯해 10여 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빅3 지자체’로... 320만명, GRDP 150조, 예산 25조

광주·전남, 전남·광주는 이번 통합으로 인구 320만 명, GRDP 150조 원의 초광역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명, 200조원), 대전·충남(357만명, 207조원)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조원의 정부 지원금에 광주 7조 7000억원, 전남 11조 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재탄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4위권 메가시티 반열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원만 놓고 보더라도 마산·창원·진주, 광주·정원 등 기존 통합시례를 압도하는 규모다.(2편에 계속)

/뉴스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대상 : 아파트(초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커머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푸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물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을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 시공 전후 사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